

선학원 내부갈등 표면화

지방분원장들 이사회 퇴진 재산환원 요구 "내부규정으로 종단요구 수용" 안 내놓기도

선학원 지방 분원장들이 조계종단의 요구사항을 내부규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안을 내놓으며 종단과의 협의에 동참키로 했다.

대구와 대전지역 분원장 30여명은 3월24일 선학원 이사회가 열리는 서울 중앙선원을 방문, 이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종단과의 실무회의에 분원장 대표 2인을 포함시킨다는 합의했다.

이날 분원장들은 중앙선원에서 임시회의를 갖고 이사회가 다년간 종단과의 관계 정상화를 수립하지 못하고 지적제한에까지 이르게해 신뢰할 수 없으므로 종사퇴하고 새로운 이사진과 협상안을 구성하여 합의를 도출하라 △선학원 재산은 이사회재산이 아니므로 조계종과 분리 독립하려면 등록된 재산을 모두 환원하라 △이사회 임의로 이사를 선임하지 말고 지역별로 분원을 추천받아 선임하라 △종단결정과 정관은 이사회 임의로 변경하지 말고 재산을 증여한 분원장들 참석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수행하라 등 4개항을 결의했다. 이 내용은 이사회와의 간담에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원장들은 이사회와의 간담에서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도 종단과 합의 할 방법이 있다"며 종단의 요구사항을 내부규정으로 정해 시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방 분원장들이 이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종단과의 대화를 통한 합의점 도출로 현재의 제재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종단이 더이상의 대화를 거절하고 있고 재단은 자체 슬러증발급과 교육위원회 구성등을 준비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 더이상 대화를 통한 합의점 도출은 어렵다는 것이 주변의 관측이다. 둘째는 재단에 등록된 재산의 환원이다. 분원장들은 재단 이사회가 종단으로부터 분리독립하는 상황을 설정, 등록재산을 환원 받아 종단으로 등록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에 등록된 재산을 개인이 환원 받는 것도 현행법상 매우 어려운 것이어서 적잖은 마찰의 소지를 안고 있다.

결국 지방분원들은 종단의 제재조치로 인해 겪는 현실적인 애로사항들의 책임을 이사회에 물으며 독자적으로 거취문제를 모색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재단측은 "여러차례의 설문조사에서 정관계장 불가 의사를 보였던 분원장들의 의사를 존중해 종단과 맞서 왔는데 지금에서 입장을 바꾸고 이사회를 집행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단측이 조속한 시일내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선학원 내부에 적잖은 진동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임연태 기자



"해산하자"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설정섭(가운데)과 부의장 최화(좌), 법등(우) 스님이 침묵한 표정으로 '종회 해산'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할일 태산 유회거듭 사명감 부재 '원인'

조계종 11대 종회 해산론 나온 배경

개혁회의를 통해 구성된 조계종 제11대 종회가 '해산론'의 대두로까지 흘러갔다. 거기에는 종회의원들의 사명감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94년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제11대 종회는 모두 18차례 회의를 열었다. 그중 8번이 유회였으며 그 이유는 모두가 성원미달이었다. 126회 종회의 경우 성원미달로 개최조차 되지 못했으며 이번 131회 종회는 안건만 논의한 채 다시 성원미달로 유회됐다.

성원미달로 인한 종회의 유회는 종회 임기 중반부터 두드러지기 시작, 임기가 8개월여 남은 현재까지 계속돼 왔다. 개혁회의 직후 종회가 밝듯도록 논쟁을 벌이며 진지하게 종책을 수행한 것을 감안 할때 최근의 유회사태는 개혁회의의 냉각과 책임감의 상실이란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회의장 설정 스님은 26일 유회상황을 지켜보며 "종도들의 여망을 저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의원들은 허풍쟁이거나 다름없다"고까지 질타했다.

종회 외부가 아닌 의정단과 종진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산론이 제기된 것은 '자성'의 차원을 넘어서 '자학'과 '좌절'이라는 시각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님들은 "오허려 내부에서 먼저 수습의지를 드러낸 것은 발전적인 의미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해산론이 종회의원 개인에게 각성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임기말년의 종회는 할일이 많다. 그러나 종법제개정안등 주요사항들은 빈번히 의안으로 채택만 되었을뿐 논의의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종법제개정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는 하반기에 치러질 종회의 원선거, 종회의장 선거, 총무원장 선거 등이 매끄럽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종법제의 제정과 종무원법 성보관리법 개정안등은 종단 집행부가 누적인종무행정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열쇠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종회의 거둔된 유회로 종단행정의 상당 부분이 막혀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해산론'을 또다른 현안으로 내세우기 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임시종회를 다시 소집해 진지한 자제로 종단 현안을 해결, '유회의 미'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교계의 시각이다.

임연태 기자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종단협의회(회장 월주, 조계종총무원장)가 국가경제의 빠른 회생을 위해 각 종단이 주관한 전국승회 공동법회를 11월까지 8차례 개최한다.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 대법회'. 그 첫 법회로 조계종이 주관하여 4월5일 오후2시 강원도 신홍사에서 국민화합을 기원한다. 법회준비에 여념이 없는 신홍사 주지 도후스님을 만났다.



- 이번 법회는 범종단 차원에서 열리는 첫 국난극복 기원법회라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가 기업 가계가 모두 경제난으로

수요 인터뷰

5일 '국난극복 대법회' 여는 신홍사 주지 도후스님

"참회하는 마음 호국의 출발선"

로 어려움이 큼니다. 특히 대량실업 사태로 국민들은 마음아파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면 불교는 분명히 그 극복을 위해 나섰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회도 이시대 구제금융(IMF)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호국은 '참회'임을 국민들에게 일깨우고 이를 통한 국민화합을 기원하는 것이지요.

- 신홍사 법회에는 전두환 前대통령 부부가 참석해 위기극복을 위한 기원사를 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불자이기도 하지만 나라의 어려움을 구하자는 취지의 법회에 전직 대통령님이 함께 나섰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을 것으로 봅니다. 전대통령께 법회참석을 청했다니, 불자들부터 마음을 모아나간다면 온 국민에게도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며 흔쾌히 수락하셨습니까. 마침 가족 전체가 울리고 있는 백일기도 회향도 며칠 남지않아 이번 신홍사 법회를 큰 인연으로 받아들이시더군요.

- 이번 법회는 국민화합을 기원하면서 화합의 나무심기 행사도 있지않

국민화합기원 나무심기 당일 입장료 받지않기로

습니까.

▲지역·계층·빈부·종교 등 국민 갈등 요소를 하루속히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앞에 놓여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구동성으로 기대한 것도 국민화합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회에서는 법외식장인 통일대불 앞에서 약 150m떨어진 곳에 국민화합의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 강원도가 지리적인 특성으로 불자들의 동참을 위해 더 많이 애쓰시는 것으로 듣고있습니다.

▲4교구 본사 월경사 차원에서라도 함께 추진하고 있고 조계종 소속 사찰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관음종 법륜종 원용종 등 각종 단종도들도 동참합니다. 전국 불자들의 인력이 집약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영란 기자

늘어나는 실업자·사기·절도·여중생 자살등 우울한 이야기가 꼬리를 물고있다. 그렇다고 마냥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낼 수야 없지 않겠는가.

자신을 움직이는 주인이 자기이듯, 우리를 움직이는 주인 역시 우리들이다. 나무에 새순이 돋고 봄꽃들이 다되어 피어나고 있다. 계절에 역행하지 말자. 희망을 갖자.

요즘 환경운동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펼치는 '생명의 숲 가꾸기운동'은 바로 희망가꾸기 운동이다.

10년간 매년 10만명씩 참여하여 전국의 산에 숲을 가꾸는 이 운동은 IMF 실



생명의 숲

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공공사업으로 실시되면 참가자들은 산에서 수개월씩 캠프생활을 하면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고, 어린나무를 가꾸고 텃밭을 제거한다. 수종을 개량하는 등 사업을 잘 하면 투입비용의 2.87배에 달하는 경제효과와 4배의 환경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실업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숲 가꾸기는 더없이 큰 희망가꾸기이다. 숲은 여러면에서 인간을 이롭게 한다.

최근 "산림욕으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페솔 성분은 함유한 나무의 경우(나무생장호르몬)는 동물을 진정시키므로 편백·잣나무·소나무 옆에 서면 스트레스가 확 줄인다는 것.

숲은 대기의 탄산가스를 흡수한다. 때문에 탄산가스 흡수를 저해하는 대규모 산림전용 억제 및 후·폐경지조립사업 강화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경화박사(임업연구원·39)에 의하면 잣나무의 경우 60~70년 자란다고 봤을때 그루당 연평균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0.0009052톤 소. 송유차 1대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0.955톤소. 이를 다 흡수해 하려면 1인당 평생 1055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나무와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서 있는 두개의 갈대단처럼 공생한다. 공생의 연(緣)을 잘 가꾸는 일은 곧 생명운동이며 화합운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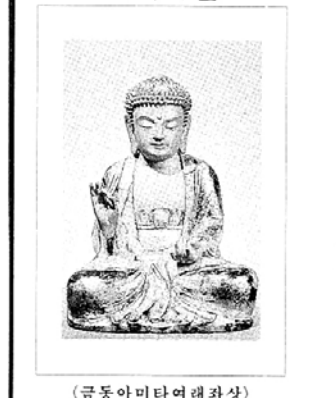
4월5일은 식목일. "나무를 심자. 10년후 생명의 숲을 연상하면서" 숲가꾸기 시민참여·취업 희망자는 (02)771-0370으로 전화하십시오.

조계종 종회 해산설치는

조계종의 현행 '중앙종회법'에는 종회해산과 관련한 법조항이 없다. 다만 종헌 제28조 1항8호에 "종단 비상시 중앙종회 해산 제정권"과 "중앙종회가 해산되었을 때는 원로회의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중앙종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대목이 있다. 원로회의법제 13조와 14조도 종헌 제28조의 관련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종회가 해산을 결의하여 원로회의에 해산을 신청하고 원로회의는 2/3이상의 찬성으로 종정에게 이를 재가 받아야 종회는 해산된다.

극락정토의 영원을 담은 아미타전



(금동아미타여래좌상)

아미타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극락정토의 방편을 제공합니다.

아미타전도 보고 여가도 즐기고... **에듀카 확인!**

기간: 98년 3월 31일 ~ 8월 30일(181일간) · 장소: 호암미술관

전시품내용: 총 40건 42점(유리 16점, 불화 12점, 서화 10점, 조각 2점, 사진 10점, 서예 10점, 도자기 10점)

● 관람일정 (미술관-에비랜드 서클버스 운행)

■ 아미타전 관람: 개장 오전 9시, 폐장 오후 6시 (매주 월요일 휴관)

■ 로망스관 관람: 정월 (죽림 강경 스님 권유로 꽃길 등) → 미술관관람 (2층 도자기실) → 호암아미타전

■ 로망스관 관람: 에비랜드

● 아미타전 관람요금 (8명이상 단체에 한함)

인원	아미타전 관람	로망스관 관람	에비랜드 관람	에듀카
아미타전 관람 + 에비랜드 관람	13,000	11,000	8,500	4,000
아미타전 + 에비랜드 관람 + 로망스관 1층 관람	15,000	13,000	10,000	6,000
아미타전 + 에비랜드 관람 + 로망스관 2층 관람	17,000	15,000	11,500	7,000
아미타전 관람 + 에비랜드 관람 + 버스	22,000	20,000	16,000	13,000
아미타전 관람 + 에비랜드 관람 + 버스	22,000	20,000	18,000	14,000

■ 현대불교신문사로 관람 신청하시는 단체에 한해 우대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생을 원하는 사찰 및 단체는 본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관: 현대불교신문사, 삼성에비랜드, 호암미술관

■ 문의 및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전화: 02-732-1522, 737-8881 팩스: 737-0697, 737-0696)

승광사 삼월불사 안내

- 방장 추대법회 · 주지 취임식 및 가사불사 회향 -

귀의 삼보하옵고,

16국사의 도량, 승보총찰 조계산 승광사는 보조국사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효부, 구산, 일각선사로 이어지는 청정승가의 수행과 화합의 정신인 敎家風을 계승해 왔으며,

20여년 전부터 불일국제선원을 개설하고, 하계수련회를 매년 개최, 국내외에 불교의 위상을 널리 선양해 왔습니다.

제8차 중창불사를 거쳐 중단 없는 불사로 도량의 면모가 일신되고, 결계대중이 130명에 이르고 있으며, 구산선사의 유훈에 따른 중창불사의 회향을 위한 마지막 불사로 올린(비전)과 수련장 불사가 남아있습니다.

이 모든 불사는 先師스님들의 加護와 叢林大衆들의 화합, 여법한 정진, 그리고 전국 불일회원과 사부대중의 수회 동참한 원력이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계총림 제5대방장에 범일보성대화상(梵日菩提大和尚), 부방장에 석림현호화상(石林玄虎和尙)을 산중임회(林會)와 종회에서 추대되었고, 그 동안 중창불사의 공로를 인정하여 현 주지 현고화상(玄槲和尙)이 후임 주지에 재추천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인년 삼월불사에는 보살계 수계산림과 보조국사 종계 뿐 아니라 방장스님의 개당설법 및 주지 진산석과 3년에 걸쳐 3천벌을 조성한 가사불사 회향식을 성대히 갖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불사에 동참하신 사부대중과 전국 불일회원은 물론, 뜻 있는 모든 불자들의 수회동참을 거듭 바라면서 이 인연 공덕으로 다 같이 복혜가 구축하고 큰 깨달음을 이루어 모두 성불하여 지이다.

법회 안내

① 일 시: 불기 2542(1998)년 4월 21일(음, 3월 25일)~4월 23일(음, 3월 27일) 3일간

① 4월 21일(음, 3월 25일) 오후 7시 보살계 입재 / 오후 8시 보살계 심지법문

② 4월 22일(음, 3월 26일) 오전 7시 보살계 계율설법(법문)

오전10시 3차 가사불사 회향/오후 1시 방장스님 개당설법, 주지진산석/

오후 3시 보살계 계율설법 (법문)/오후 7시 전국불일회 정기총회

③ 4월 23일(음, 3월 27일) 오전 7시 보살계 수계의식/오전 9시 보살계 오집의식/

오전 10시 788회 보조국사 종대동행/12시 무인년 3월불사 회향

② 계 사: 전계아사리(梵日菩提) 교수아사리(覺山慧元) 갈마아사리(度法法興)

③ 동참방법: 가사불사 동참을 원하는 분이나 삼월불사 동참을 희망하시는 분은 승광사 종무소 또는 아래의 연락처에 상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연락처: ① 본사: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본사 승 광 사

종무소 전화/0661)755-0107,0108,0109 팩스/0661)755-0408

② 지역: · 서울본원 법련사/02)733-5322 · 광주본원 원각사/062)223-3168

· 대구본원 관음사/053)423-4413 · 순천본원 대승사/0661)744-4902

· 부산본원 관음사/051)205-0069 · 부산본원 보덕사/051)518-7790

· 여수본원 보현사/0662)62-5145 · 광양본원 보광사/0667)763-1192

· 승광사 각달사찰 · 각지역 불일회

⑤ 동 참 금: ① 삼월불사 보살계 수계 동참금 30,000원

② 영가전도 동참금 10,000원 ③ 가사불사: 한가족 한방동참금 300,000원

◆ 온라인 번호 ① 농 협 615107-51-008814 (예금주 승광사)

② 우체국 501676-0014699 (예금주 승광사)

③ 국 민 551-01-0470-485 (예금주 승광사)

전남 순천시 승광면 신평리 12(우:540-930)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본사
승보총찰 승 광 사 조계총림

방장 범일 보성 주지 현 고 승 광